Global Goings-on

* 주요국의 보건복지 정책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최근 연구 자료를 선정하여 번역 정리한 글임.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Netherlands 2014

OECD. 140p. 2014. ISBN(9789264208155)

회원국들의 급속한 인구고령화 현상을 감안할 때, 경제 성장 촉진과 공공복지지출 유지를 돕기 위해 노년층에게 너 나은 작업동기와 직업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2011년 OECD 고용노동 사회문제 위원회에서는 고용 능력, 직업이동 그리고 노동 수요를 통해서 노년층에게 더 많은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새로운 일련의 정책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2006년 출판된 주요국 보고서 Live Longer, Work Longer을 요약한 고령화와 고용정책 자료 중 OECD가 이들 지역에서 수행해온 이전 연구를 기반으로 하였다.

최근 개혁들의 비교 검토와 노동 시장 요인들의 실증적 연구, 그리고 면밀한 국가 사례연구 결과들에 의한 Working Better with Age라는 제목의 고령근로자 관련분석이 2015년에 발간될 것이다. 이것은 고위급 정책 포럼에서 OECD 고용노동 사회문제 위원회와 노동부 장관들에 의해 이후에 논의될 주요 현안들과 정책과제들이 강조될 것이다. 이 네덜란드에 관한 보고서는 프랑스와 노르웨이 이후 OECD 사례연구들 중 하나이다.

조기 퇴직 제도로 인해 노동 시장을 떠나는 것이 네덜란드 고령 근로자에게 흔했다. 지난 10년간 당국은 인센티브 증가, 장애 연금 착취 해결, 그리고 국가 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조치들을 취해왔고 고무적인 결과를 달성했다.

Employment and Skills Strategies in Canada

OECD. 128p. 2014. ISBN(9789264209374)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캐나다 경제에 큰 압력을 주었지만 그 영향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가벼웠다. 그에 따르면, 성장은 완만하고 장기 실업자, 청소년, 여성, 장애인, 이주, 고령 노동자를 포함하는 그룹은 노동 시장 재진입에 장벽이 있다. 고용과 훈련 정책으로 경제 성장과 생산성을 촉진시키면서 이 그룹을 활성화시키

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OECD 지역 경제 및 고용 개발(LEED) 프로그램은 노동 시장 정책의 유익을 조사하는 국제 비교 연구로서 현지 고용 창출에 대해 연구해 왔다. 온타리오와 퀘벡은 캐나다 경제 활동의 상당한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역의 고용창출 지원노력은 총체적인 성장과 생산성에 매우 중요하다.

온타리오에서 직업 훈련 서비스는 대학교, 전문학교, 훈련부에 의해 관리되고 온타리오 고용부를 통해 비영리 조직에 의해 관리된다. 그들은 실업자를 지원하고 그들에게 고용 기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 사회 대학은 개인과 고용주 모두에게 알맞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청소년과 성인 직업 교육 뿐만 아니라 공통 기준 및 인증을 개발하고 직업 훈련 교과 과정 개발에 책임을 맡고 있는 대학의 설립을 통해 실습 제도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퀘벡 주에서는 고용사회부의 한 단위인 Emploi-Quebec(Ministere de l'Emploi et de la Solidarite sociale)를 통해 지역 고용센터에 의한 공공 고용 서비스가 시행된다. 온타리오와는 대조적으로, 퀘벡은 기술 개발 시스템에서에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립 대학(CEGEPs)은 개인과 고용주의 요구에 교과과정을 조정하는 데 장벽이 있다. 직업과 기술 훈련의 다양한 요구가 있는 퀘벡은 개인과 기업의 요구 사항을 서로 연계하는 지역 협력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Employment and Skills Strategies in the Czech Republic

OECD. 96p. 2014. ISBN(9789264208957)

체코는 투자하기에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환경을 창출하는데 그동안 상당한 진전을 보여 왔으나 자국의 장기 및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통합된 고용 · 기술 · 경제 개발 정책을 통해 이뤄야 할 일이 아직 많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한다. 보고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지역경제의 실질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고용주들의 참여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한다. 그리고 양질의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제제도의 개혁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한다. 보고서는 체코가 현재와 미래의 국가적, 지역적 기술 우선순위를 식별하여 중장기적 기술전략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경제적 탄력 제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산성 개선을 위한 장기적 전략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의 고용 및 직업훈련기관의 역량이 분석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OECD 국가들에서 고용 및 훈련기관이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새로운 OECD 시리즈의 일환으로 여기에는 호주, 벨기에, 캐나다, 체코, 프랑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한국, 북아일랜드, 스웨덴, 영국, 미국 등이 포함되어 있다.

Trends in Top Incomes and their Taxation in OECD Countries

OECD. 159p. 2014.

지난 30년간 OECD 국가에서는 전체 세전소득에서의 최고 소득자의 몫이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영어권 국가에서 두드러지지만 일부 북유럽국가와 남유럽국가에서도 나타난다. 오늘날에는 소득 상위 1%가,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경우, 세전소득의 7%를, 미국의 경우 거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는 지난 30년간 소득 상위 1%의 소득성장률이 다른 소득자의 성장률보다 높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호주와 영국에서는 20~25%, 캐나다에서는 37%, 미국에서는 47%). 동시에 이는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실행된 세제개혁이 상위 소득자의 소득세율과 최상위 소득자에 영향을 미치는 세율을 전반적으로 낮추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1970년대 중반에만 하더라도 OECD 국가들의 절반 정도에서의 상위 소득자의 소득세율은 70%를 상회했으나 2013년까지 많은 나라들에서 이 세율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Education Indicators in Focus 19

OECD. 4p. 2014. ISBN(2226-7077)

OECD는 매년 진학, 졸업, 교육재정, 교원, 학습환경, 학교조직 등의 교육 지표 중 주요 지표를 골라 격월로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대학생들이 주로 어떤 전공을 선택했는지를 분석하고 해설하고 있다.

OECD 국가 대학생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전공은 32%를 차지한 사회과학, 경영, 법학으로 나타났다. 예외적으로 한국과 핀란드는 공학, 제조 및 건축분야 전공이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다. 벨기에는 의료 및 복지분야 전공학생이 4명 중 1명이 선택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농업 및 서비스분야 전공은 10% 미만의 학생들이 선택하여 가장 낮은 선택을 받았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경영학 분야 전공을 23%가 선택하여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 및 의료 복지 전공은 12%로 평균 이하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한편, 과학분야 전공은 남학생이 39%, 여학생은 14%만 선택하여 전공에 따라 성비불균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과학을 기피하게 만드는 고정관념이나 문화의 영향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에 교육, 보건 및 복지분야 전공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많은 선택을 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OECD Economic Surveys: Poland 2014

OECD. 140p. 2014. ISBN(9789264206717)

최근 OECD에서 발간된 폴란드 경제검토보고서는 고용 활성화 정책, 상품시장 경쟁 강화, 경제상황 및 거시정책의 세 부분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우선, 고용 현황은 장시간 근로에도 구조적

으로 낮은 고용수준에 기인하여 비효율적인 노동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은 상당 부분 분할되어 있어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제약하고 이는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부분적으로 부실하게 설계된 가족 및 연금 정책 등은 낮은 여성 고용률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상품시장 현황은 제한적인 상품시장 규제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광범위한 정부의 개입으로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또한 폴란드는 2013년 OECD 공기업 소유지수가 4를 초과하여 회원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더욱이 대부분의 규제기관장은 임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부처 장관에 의해 해고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상황은 2014년 연금개혁을 통해 일시적으로 정부부채 및 재정적자 수준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이는 기존의 민간연금에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했던 조치를 변경하여 나타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장은 이중구조의 축소 및 공공고용서비스의 자원을 확대하고 여성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탁아 및 장기보육시설, 유아교육시설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소유기업을 축소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규제기관의 기관장에게 연임불가 임기제를 도입하고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해고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재정건전화를 위해 재정성과를 모니터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편역 | **김선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라기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원)
연가연(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